

권마성교 (勸馬聲巧)

李輔亨
(文化財專門委員)

- | | |
|-----------------|-----------------|
| 1. 머리말 | 4. 판소리 勸馬聲제 |
| 2. 勸馬聲巧의 辭說과 機能 | 5. 靈山會相에서 勸馬聲가락 |
| 3. 音樂的 特性 | 6. 맺는말 |

1. 머리말

판소리의 조(調) 가운데 「설령제」가 있는데 이것을 한편으로 권마성(勸馬聲)제라고도 부른다. 또 영산회상(靈山會相)의 군악(軍樂) 가운데 「권마성(勸馬聲)가락」이 있다. 판소리 설령제를 밝힌 논문(論文)¹⁾과 영산회상(靈山會相) 군악(軍樂)을 다룬 논문(論文)²⁾에서 권마성(勸馬聲)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問題)가 나왔으나 지금까지 권마성(勸馬聲)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였다.

나는 옛 문헌(文獻)을 뒤져 보다가 신광수 관서악부(申光洙 關西樂府), 윤달선 광한루악부(尹達善 廣寒樓樂府), 한양가(漢陽歌), 성주(城主)놀이, 춘향가(春香歌), 배비장전(裴裨將傳) 이춘풍전(李春風傳) 등 여러 문헌에서 권마성(勸馬聲)에 대한 기능(機能)과 사설(辭說)을 약간씩 찾아내었다. 그리고 1966年 9月 30日에 헤으만씨(氏)와 내가 전라북도(全羅北道) 정읍군(井邑郡) 칠보면(七寶面)에서 옛날 교군으로 일하던 노인들을 찾아내어 녹음(錄音)한 권마성(權馬聲)을 비롯하여 몇가지 권마성(權馬聲) 자료를 찾았다.

나는 위 문헌과 녹음(錄音) 자료를 가지고 권마성(權馬聲)의 사설(辭說)과 기능(機能)과 또 음악적(音樂的) 특징(特徵)을 밝혀보고 싶다. 또 권마성(權馬聲)이 판소리 설령제(권마성(權馬聲)제) 및 군(軍)의 권마성(權馬聲)가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 보고 싶다.

2. 권마성(權馬聲)의 기능(機能)과 사설(辭說)

1) 李輔亨 「판소리 權三得 설령제」 石寅善教授回甲紀念, 民俗學論 (서울 : 同刊行委員會) (1971.11.25) pp.141~169.

2) 張師勛, 「遊藝志 軍樂打令과 現行軍樂과의 關係」 藝術院報 第8號(서울 : 藝術院 1960. 6. 10) pp. 225~261.

권마성(權馬聲)은 관서악부(關西樂府)와 광한루악부(光寒樓樂府)에 보면 귀인행차(貴人行次)에 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長林五月綠陰平
十里雙轎勸馬聲
永濟橋頭三百妓
黃衫分作兩行迎

<申光洙 關西樂府>

本府生辰今適丁
浚寒高閣關丹春
雄州太守隣相速
權馬聲交五里亭

<尹達善 光寒樓樂府 第九十七疊>

「십리쌍교권마성(十里雙轎勸馬聲)」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권마성(勸馬聲)은 쌍교(雙轎)와 같은 귀인행차(貴人行次)의 가마에 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가마라면 흔히 사인교(四人轎)를 생각하기 때문에 권마성(勸馬聲)은 교군(轎軍)들이 부르는 소리로 짐작하는데 하필 권마성(勸馬聲)이라 하여 「권마소리」라 하지 않고 말모는 소리라 한 것이 주목된다.

이화도화 행화방초
양류청청 녹수잔잔
만산화개 경좋은데
사면을 둘러보면
산호금편 권사성에
행운같이 재계달려

<裊裊將傳>

배비장전(裊裊將傳) 사설(辭說)에 보면 구마종(驅馬從)이 산호금편(珊瑚錦鞭)으로 말을 행운(行雲)같이 재계 달릴 때 권마성(勸馬聲)이 불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마소리를 권마성(勸馬聲)이라 한 것은 사인교(四人轎)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쌍교(雙轎)에서 나온 것이다.

구름갓흔 雙轎別輦
牧丹색임 완자창
네활찌 썩별리고
一等馬夫 有囊達馬
덩그릇케 시러눅코

<옥중가인>

쌍교(雙轎)나 독교(獨轎)는 사람이 메는 것이 아니고 유쌍달마(有雙達馬)에 싣고 일등마부(一等馬夫)가 물고 가는 것이다. 독교(獨轎)는 말 한필에 가마를 싣지만 쌍교(雙轎)는 앞채 뒤채, 말 두 필에 싣고 앞채잡이와 뒷채잡이가 물고 간다. 즉 가마를 말에 싣고 가기 때문에 말 모는 소리 즉 권마성(勸馬聲)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권마성(勸馬聲)은 누가 부르는 것일까?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복사(司僕寺) 거덜이나 역원(譯院)의 역졸(驛卒)이나 하인(下人)들이 부른다고 한다.

「임금이 말이나 駕轎을 탈 때 또는 奉命高官이나 首領이나 또는 그들의 貴人이 雙轎을 탈 때에 威勢를 더하기 위하여 途中에서 가는 목청을 길게 빼서 부르고 그밖에 다른 때에는 驛卒이 부른다.」

<한글학회 큰사전 勸馬聲條>

「貴人이 타는 五人轎 獨轎 또는 말을 타고 갈 때 下人들이 길게 외치는 소리」

<李熙昇著 국어대사전 勸馬聲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속(官屬)들이 권마성(勸馬聲)을 부르는 것 같이 보인다.

경기감영 세피큰
홍청의 공작은익
가는소리 권마성이
말고도 고울시고

<漢陽歌>

전후좌우 어전사령
앞뒤로 내려서서
삼인풍악 권마성은
대도상 진동하고

<成造풀이>

권마성(勸馬聲)은 본래 마부(馬夫)나 교(轎)군들이 부르는 것이니 어전사령(御前使令)이나 감영세패들이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보이는 사령(使令)이나 급창(級唱)이 마부(馬夫)나 교(轎)군에게 령(令)할 때 권마성(勸馬聲)가락으로 청령소리 같이 불렀던 것으로 봐서 어전사령(御前使令)이나 감영세패들이 불렀다는 것도 이러한 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이튿날 平明後
新官使道 發行홀시
謝恩肅拜 하시後
長安署經 暫間돌고
告祠當 參拜하고
全羅道로 내려간다
구름又흔 雙轎別輦
牧丹시임 완字窓
네할기 썩버리고
一等馬夫 有囊達馬
덩덩크러케 실어노코
키큰使令 靑장옷
뒤치잡이 힘을쓰며
別輦 뒤 스다랐는디
南大門밖 썩니다라
花爛春城 萬和芳暢

버들잎 푸릇푸릇
 白沙銅雀 일느건너
 南大嶺을 넘엇고나
 首部호雙 通引호쌍
 吏房刑吏 工房이며
 支掌色 吹鼓手
 巡令手 都房子級唱이
 左右로 되신邏卒
 日率驅從 前後陪
 各差備 馬를타고
 十里에 連호엿다
 馬夫야 네말도타말고
 두팔에 힘을올너
 兩臂 기울지안케
 馬上을 우러러
 고로 져어라
 구은돌이야 지방이야

<獄中花>

「馬夫야 네 말이 좋다 말고, 一時 마음 놓지 말고 두 팔에 힘을 올려 양옆 기울지 않게馬上을 우러러 고로 져어라」 하는 것은 쌍교(雙轎) 뒤채잡이에 힘을 쓰며 별련(別輦) 뒤에 따라 가는 사령(使令)이 마부(馬夫)에게 내리는 령(令)이겠고 「굵은 돌이야 지방이야」 하는 것은 마부(馬夫)가 령(令)을 받는 것이다. 다음에는 급창(級唱)이 마부(馬夫)에게 령(令)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新延級唱 치레보라
 키크고 길잘것고
 어엿부고 말잘호고
 恰俐호 더級唱이
 외울綱巾 玳瑁貫子
 貞絲당줄 달아쓰고
 偃月상투 珊瑚동곳
 琥珀風簪 光彩난다
 二百줄 平布笠을
 호一지게 반듯쓰고
 白壽袖 루리바지
 韓山모시 方巾綴翼
 자락을 가기접어
 黑자絲 手巾으로
 뒤로져쳐 잡아미고
 熱繡半背 古緞背子
 銀粧刀를 비스차고
 天靑毛綃 허리디쉬를

左牽又치 넓게접어
 무름아리 썬더러쓰리고
 挑榴佛手 錦囊에다
 大邱入絲 꾸여치고
 夾囊쌘지 술상끈
 五色으로 얼른얼른
 四늘집신 엮충짜져
 落考紙로 들메신고
 潔白흔 壯油紙로
 초籠단임 잡아미고
 靑帳줄 검쳐미고
 활기 훨훨치며
 大馬驅從아
 니굴데 보지말고
 말갈데 보아라
 주먹갓튼 내민들이
 서실 퍼럿코나
 팔디 힘올려
 고로 겨러라
 예 숨은돌이아

<獄中花>

「大馬驅從아 네 갈데 보지 말고, 말 갈데 보아라. 주먹 같은 내민 들이 서슬이 퍼렇구나. 할대 힘 올려 고로 저어라」 하는 것은 級唱이 숨을 내는 소리이고 「숨은 돌이아」 하는 것은 大馬驅從의 받는 소리라 하겠다.

정읍(井邑)에서 교군(驕軍)들이 부른 것을 녹음(錄音)한 권마성(勸馬聲)의 사설(辭說)을 보면 령(令)을 내는 내용(內容)과 령(令)을 받는 내용(內容)으로 되었다.

후배사령 청사초롱 불 밝혀라
 그러세~
 어후이어 히어 으어 으어 어어
 이 구부 저 구부 뒤틀어진 구부 장차구나
 알았다 그러세-
 어후이어 어이어 어이어 어

<井邑地方 勸馬聲>

「後部使令 靑絲초籠 불 밝혀라」 또는 「이 굽이 저 굽이 뒤틀어진 굽이 장차구나」 하는 것은 령(令)을 내리는 것이고 「그러세」 또는 「알았다 그러세」 하는 것은 령(令)을 받는 소리이다.

음악적(音樂的) 특징(特徵)으로 봐서 권마성(勸馬聲)과 다르므로 노동요(勞動謠)로 볼 수 있는 진양산청지방(晉陽山淸地方) 「가마 메는 소리」 에도 령(令)을 내는 소리와 령(令)을 받는 소리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육조군 다들어쨌는가
 어어-
 야- 뒷대
 어이 오른대요 앞대
 어히-
 바닥이 어땡노
 여기는 높다
 여기는 낮다
 바닥이 얼른얼른 하는고나
 쉬 곰베 에헤- 이-

<晉陽山淸地方 가마소리>

권마성(勸馬聲)이란 이와 같이 귀인행차(貴人行次)에서 령(令)을 내는 소리와 령(令)을 받는 소리가 엮혀서 떠들썩하게 연출(演出)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령(令)을 내고 령(令)을 받는 권마성사설(勸馬聲辭說)의 내용(內容)은 무엇인가? 첫째는 마상(馬上)의 가마가 가울지 않게 고로 저어라는 령(令)을 내리는 것과 「저러습다」 하고 령(令)을 받는 것이다.

각채비가 말을타고
 십니허 다엇난되
 마부야
 네말이 좃타말고
 정마손으다 힘을 주어
 양엽피 지우잔케
 마상을 우러러보며
 고이 저어라
 저러습다

<鄭應珉本 春香歌>

좌우구경 진정마의
 뛰치지비 심씨라

<열녀춘향수절가>

가마가 기울지 않게 령(令)을 내는 것은 정읍지방(井邑地方) 권마성(勸馬聲)에서도 볼 수 있다.

가마상정이 수긋허다
 전후조군이 말마취라
 그렇지
 어허 후이어 어어

<井邑地方 勸馬聲>

사인교(四人轎)는 전후교(前後轎)군이 말을 맞추어 메어야 하며 발을 잘못 맞추면 가마상정이 수긋이 기울어 넘어지게 되므로 교(轎)군에게 말맞추도록 령(令)을 내는 것이다. 발 맞추라는 것은 진양지방(晉陽地方) 가마소리에 도 보인다.

네리 속으려졌다

오른대요 왼대요
앞으로 들어라
뒤를 낮추어라
한발자씩하던
네발 굽어 떨어진다.

<晉陽山淸 가마소리>

둘째는 길에 박힌 돌에 말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잘 비껴가라는 령(令)을 내리는 것과 「숨은 돌이야」 「내민 돌이야」 「굵은 돌이야」 「지방이야」 「이발보아라」 「우두루 워」 하고 령(令)을 받는 것이다.

大馬驅從아
니글데 보지말고
말갈데 보아라
쥬막갓튼 내민돌이
서실 퍼럿코나
팔디 힘을올려
고로 겨러라
예 숨은돌이야

<獄中花>

大馬驅從.
너갈데 보지말고
말갈데만 보아라
주먹갓튼 내민솔이
서슬이 퍼럿쿠나
예 숨은돌이야
내민 돌이야

<圖像獄中花>

귀인행차(貴人行次)에서 말이나 교(轎)군이 굴에 묻힌 돌에 넘어지는 일이 가장 많았던지 여러 권마성문헌(勸馬聲文獻)에 숨은 돌을 조심하라는 것이 많다.

조마중아
근너다 보아라
잔들이 만쿠나
워두루 워

<五歌全集>

수문도리 종종종
마문도리 것쩍피어
무심이 실죽힘노하노니

<鄭應玟本 春香歌>

수문도리 종종
내민돌이 걸이피어
實地險路로구나

<金演洙 唱本春香歌>

금장이의 호스보소
밀화동긋 당비철육
세초째 즈버디고
별연을 부촉하야
좌우로 갈너셔며
「호호지방 거칠세라」

<高大本 春香歌>

길에 묻힌 돌을 조심하라는 것은 정읍지방(井邑地方) 권마성(勸馬聲)에도 보인다.
옷들 옷들 숨은 돌머리
깊이 올려라
그러세
어 후이어 어어

<井邑地方 勸馬聲>

진양지방(晉陽地方) 가마소리에도 돌을 조심하라는 것이 보인다.
걸들도 많고 숨은 돌도 많고
징금다리도 멀었다.
복판에 채인 돌도 많고
바닥이 채인 돌도 많고
바닥이 좋다고 내치지 말고
왼쪽다리 떠러졌으니
오른쪽 자시 봐라
한발자식 걸으면
네 발 굽어 떠러진다.

<晉陽山淸地方 가마소리>

기산(岐山)은 앞에 돌이 있을 때에는 「바닥에 장들봐라」 한다고 쓰고 있다. 전남(全南) 영암(靈岩) 손종현(孫鐘鉉)(남(男)70)은 돌이 있을 때에는 「도독있다」고 한다고 했다.

다음에 보이는 옥중화(獄中花)나 도상옥중화(圖像獄中花) 사설에는 말을 고이 저으라는 령(令)에 「저러습다」 하고 령(令)을 받지 않고 「굽은 돌이야」 「지방이야」 「이발보아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馬夫야
네말이 도타말고
一時마옴 낫치말고
두팔에 힘을올려
兩렴 기울지안케
馬上을 우러러
고로 저어라
구은돌이야 지방이야

<獄中花>

馬夫야
네말이 조타말고

一時마음 노치말고
두팔에 힘을늘너
兩엽 기울잔케
馬上 우러러
고로 저어라
굽은 돌이나
지방이나 이발보이라

<圖像獄中花>

「굽은 돌이야」「지방이야」「이발 보아라」하는 것은 말을 고로 저어라 하는 령(令)에 받는 것이 아니고 「말갈데 잘 보아서 숨은 돌을 피하라」는 령(令)에 받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는 길이 굽어 있거나 거칠게 되어 있을 때에는 잘 비겨가라는 령(令)을 내며 「구부야」하고 령(令)을 받는 것이다.

에 구부야
수문도리 종종
마무두리 것잡피여
무심이 실족허노하노니

<鄭應玟本 春香歌>

권마성 늑홀소리
만공의 높이뻗다
허허허허 부두야

<朴奉述 春香歌>

굽은 길을 조심하라는 것은 정읍지방(井邑地方) 권마성(勸馬聲)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구부 저 구부
뒤틀어진 구부 장차구나
알었다 그러세
어 후이어 어어

<井邑地方 勸馬聲>

이것은 진양(晉陽) 가마소리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는 높으니
들대로 대라
여기는 왼쪽 굽으니
오른 다리도 실컨 풀어라
여기는 오른쪽 굽으니
왼다리를 실컨 풀어라
이리 굽고 저리 굽었으니
왼다리 감고
오른 다리 살살 풀어라

<晉陽 가마소리>

기산(岐山)에 의하면 가마꾼들이 옆으로 돌적에 「좌편 돌아라」「우편 돌아라」좌편(左便)에 낭떠러지가 있을 때에는 「좌편 돕 떠러진다」 언덕길에서는 「위가 높았다」

등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소리로 앞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인데 뒷사람은 알았다는 식(式)으로 노래를 받는 것이라 한다. 영암손종현씨(靈岩孫鐘鉉氏)는 교군들이 「구비 구비여」 「수부 수부여」 「도리 도리여」 「위-」 하고 권마성(勸馬聲)을 부르며 가마꾼들이 고랑을 건너 뛰는 데에서는 「당것다」 하고 소리친다고 했다.

권마성(勸馬聲)과 함께 귀인행차(貴人行次)에 딸리는 소리가 혼금(閹禁)소리이다.

전후의 혼금소리
청산이 상응하고
권마성 높푸소리
비운이 담담이라

<烈女春香守節歌>

혼금(閹禁)소리는 한편 벽제(辟除)소리라고도 부른다.

청시골 다달아서
좌우산처 구경하니
벽제소리 권마성에
산천이 다울린다

<李春風傳>

귀인행차(貴人行次)에 권마성(勸馬聲)과 혼금(閹禁)소리(벽제(辟除)소리)가 함께 딸리기 때문에 흔히 호동하고 있다. 혼금(閹禁)소리는 군노사령(軍奴使令)이나 나장(羅將)이 하는 소리로 잡인(雜人)을 금(禁)하는 이른바 길치우는 소리이다.

新延軍奴 치례봐라
山獸털 병거지
감日光緞 안을맞쳐
늘닐勇字 짝부치고
宮소군복 紅廣帶
背子吐手 銀粧刀
五色手巾 감肩帶
錦囊을 여럿다라
뒤로숙여 들너미고
不良흔 눈방울을
이리저리 궁굴이며
예라예라 나지말아
新延使令 치려보라
統營又 큰깃꽃고
佩纓汗衫 달앗는디
단자더그레 又치장옷
柳木棍杖 방울달아
日率압해 갈나셔서
에라이놈 나지마라

<獄中花>

혼금(閹禁)소리는 권마성(勸馬聲)과 말이 다르다. 권마성(勸馬聲)이 「구부야」 「지방이야」 「숨은 돌이야」 하는데 견주어 혼금(閹禁)소리는 「에 찌루 이놈 저놈 나지마

라」 하고 외치는 소리이다.

「예라 이놈 나지마라」

<高大本 春香歌>

「예라 몰러섯다 나이거라」

<烈女春香守節歌>

「예라 예라 나지 마다」

「예라 예라 나지 마다」

「예라 이놈 게 드러서라 어딜 번쩍」

<獄中佳人>

「예라 예라 나지마라」

「예라 이놈 나지마라」

<獄中花>

「예라 이놈들 나지마라」

「예라 이놈들 썸쩍마라 드러서거라」

<圖像獄中花>

「예라 이놈 나지 마라」

「에이찌루 에이찌루 예라 이놈 나지마라」

<鄭應玟本 春香歌>

「에이찌룩」

<裊裊將傳>

3. 음악적 특징(音樂的 特徵)

정읍군(井邑郡) 웅동면(面) 비봉리(飛鳳里)에 살았던 교군(驕軍) 오진성(남(男) 85세) 씨(氏)를 비롯하여 장동호(남(男) 72세)씨 고헌선(남(男) 56)씨가 부른 권마성선율(勸馬聲旋律)은 자유(自由)리듬으로 길게 높이 질러 부르는 것으로 한 사람이 메기는 소리와 여러 교군이 받는 소리고 구성된 장절형식(章節形式)이었다.

<받는 소리> 예 후이 히어 으어 으어어 이어으 어으이 어

<메기는 소리> 후배사령 청사초롱 불 밝혀라

<받는 소리> 그러세 어 후어 히어 으어 으어어 어 여 이어으 어의이 어

<메기는 소리> 이 구부 저 구부 뒤 틀어진 구부 장차구나

<받는 소리> 그러세 그러세 어 후이 히어 으어 으어 어 어어이 으 어 으이 어

<메기는 소리> 웃돌 웃돌 저 웃돌 숨은 돌 머리 저리다

<받는 소리> <上同>

<메기는 소리> 가마사정이 수긋허다 전후조군이 발마취라

<받는 소리> <上同>

<메기는 소리> 후배사령 저 웃돌 숨은 돌이 깊이 울렸다

<받는 소리> <上同>

위 권마성(勸馬聲) 선율(旋律)은 높은 소리로 길게 외치는 소리이다. 선율(旋律)의 구성음(構成音)은 Re Mi Sol La Do이다. La로 길게 수서 섬기며 외치다가 Sol로 끝나고 Mi(혹은 Re)로 마친다. <악보1>

<악보1> 권마성(勸馬聲) 오진성·장동호 창

<악보 1> 권馬聲 오진성·장동호 창

어 후어어 으어 으어 으어 어 어 어 - 으어
칭배 사령 칭사 초롱 불 밝 려라 그 령 지

<악보2> 소리꾼권마성(勸馬聲) 박학주창(朴學周唱)

<악보 2> 소리꾼 권馬聲 박學周唱

구부야 구부야 구부 도리야 앞에서 실 같은 물이
변 큰 섰다 예 조심 하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구부 도리야

춘향가(春香歌) 신연(新延)맞이와 같이 판소리에 삽입된 권마성(勸馬聲)은 리듬이 자진모리에 맞췄고 음조(音調)는 우조(羽調)에 맞추어서 권마성(勸馬聲)의 원형을 잃은 것이지만 단편적(斷片的)으로 높고 길게 외치는 음형(音形)이 나오는 대목도 있다.

교구(轎軍)들의 권마성(勸馬聲)이 아니고 소리꾼들의 권마성(勸馬聲)은 오히려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해남 강흥봉(海南 姜興鳳), 광주 박학주 노인(光州 朴學周 老人)에 의하면 옛날 전라도 대가택(全羅道 大家宅)에서 호사스럽게 혼인을 치를 때에는 혼인 행차(婚姻 行次)에 교군 화동 사령(轎軍 花童 使令) 외(外)에도 권마성(勸馬聲)소리꾼들이 몇 명이 딸렸다고 한다. 이들은 교(轎)군 출신이 아니고 폐량(閉良)들로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가마 앞에 전도(前導)하여 권마성(勸馬聲)을 불렀다 한다. 박학주노인(朴學周老人)이 부른 소리꾼 권마성(勸馬聲)은 사설이나 음조(音調)에 판소리두가 섞여 있다. <악보 2>

4. 판소리 권마성(勸馬聲)제(설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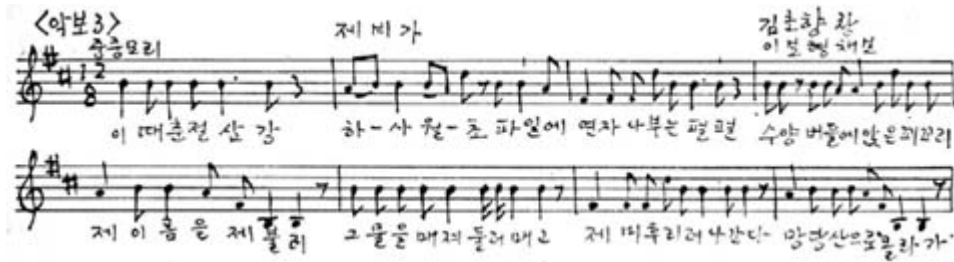
판소리 권삼득(權三得)(1771~1841) 설령제를 일명 권마성(勸馬聲)제라 부른다. 판소리 설령제는 춘향가(春香歌)에서 「군노사(軍奴使) 나가는 대목」, 심청가(沈淸歌)에서 「남경선인(南京船人) 대목」, 수중가(水中歌)에서 「이 놈 저 놈 말들어라」와 같은 대목에서 볼 수 있는데 모두 무사적(武士的)인 인물(人物)이 거드럭거리고 크게 외치고 나오며 호기(豪氣)를 부리는 극적 상황(劇的 狀況)으로 되어 있다.

설령제 대목의 장단은 중모리 또는 중중모리 장단으로 되어 있다. 설령제 대목의 선

울(旋律)의 구성음(構成音)은 Sol La do re mi sol la do'로 되어 있다. 그런데 la로 길게 주서섬기다가 la-sol-mi-re-La로 떨어져 La로 마치고 La Mi la do가 주요음(主要音)이 되는 권마성적(勸馬聲的)인 선율(旋律)이 있고 Sol로 길게 끝다가 sol-mi-re-La-Sol과 같은 음형(音形)으로 마치고 Sol-re-sol-la가 주요음(主要音)이 되는 평조적(平調的) 선율(旋律)이 있다.

설령제와 권마성(勸馬聲)과 비교하면 평조적(平調的) 설령제 선율(旋律)보다 권마성적(勸馬聲的) 설령제 선율(旋律)이 권마성(勸馬聲)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설령제 권마성적 선율(勸馬聲的 旋律)의 구성음(構成音)은 La re mi sol la do'인데 권마성(勸馬聲)은 re mi sol la do'로 설령제 보다 약간 좁다. 설령제 종지선율형(終止旋律形)은 la-sol-mi-re-La인데 권마성(勸馬聲)은 la-sol-mi(또는 re)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높은 소리 la로 길게 질러 크게 외치듯 주서섬기기는 점은 설령제와 권마성(勸馬聲)이 같다. 권마성(勸馬聲) 뒷소리의 sol이 주(主)가 되는 대목은 설령제 평조적 선율(平調的 旋律)과 비교될 수 있다. <악보 3>

<악보 3> 제비가 김초향 창, 이보형 채보



5. 영산회상(靈山會相)에서 권마성(勸馬聲)가락

영산회상(靈山會相)의 일곱 번째 곡(曲)인 군악(軍樂)에 권마성(勸馬聲)가락이라 부르는 대목이 있다. 군악(軍樂)의 이장(二章) 끝에 지속음(持續音)이 나오는 부분(部分)을 가리킨다. 군악삼장 제오장단(軍樂三章 第五長短)부터 제십일장단(第十一長短)까지는 태족 지속음(太族 持續音)이 나오고 제일 권마성(第一 勸馬聲)이라 부른다. 제십이장단(第十二長短)부터 제십팔장단(第十八長短)까지는 청황종(淸黃鍾)의 지속음(持續音)이 나오고 제십구장단(第十九長短)부터 제이십장단(第二十長短)까지는 청태족(淸太族)로 지속음(持續音)이 나온다. 제십이장단(第十二長短) 제이십이장단(第二十二長短)까지를 제이권마성(第二勸馬聲)이라고 부른다. 권마성(勸馬聲)과 군악(軍樂)의 권마성(勸馬聲)가락과 비교하면 권마성(勸馬聲)에서는 sol이나 la로 지속(持續)하여 길게 높이 질러내고 군악(軍樂)에서는 청황종(淸黃鍾)이나 청태족(淸太族)로 지속(持續)하며 길게 높이 질러내는 점에서 공통(共通)된다. 권마성(勸馬聲)에서는 la가 주(主)된 음(音)이 되는데 군악(軍樂)에서도 청태족(淸太族)가 주(主)된 음(音)이 된다고 한다. 권마성(勸馬聲)의 출현음(出現音)은 re mi sol la do'안대 군악(軍樂)의 출현음(出現音)은 태 고 중 립 남 황(太姑仲林南黃)으로 되어 좀 다른 것 같으나 권마성(勸馬聲)이 la 그리고 sol이 주요음(主要音) 구실을 하는 것과 군악(軍樂)에서 태족(太族) 그리고 황종(黃鍾)이 주요음(主要音) 구실을 하는 것은 일치한다고 하겠다. <악보 4>

<악보 4> 군악 권마성(軍樂 勸馬聲)



6. 맺는말

판소리에서 권마성(勸馬聲)제가 나오고 영산회상(靈山會相) 군악삼장(軍樂三章)에서 권마성(勸馬聲)가락이 나오므로 권마성(勸馬聲)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問題)가 되었다.

판소리 사설을 비롯한 여러 문헌(文獻)과 정읍(井邑)에서 채록(採錄)한 권마성(勸馬聲)과 진양(晉陽) 가마소리에서 보면 권마성(勸馬聲)은 쌍교(雙轎) 독교(獨轎) 사인교(四人轎)를 탄 귀인(貴人) 행차(行次)에 권마종(勸馬從), 교군(轎軍), 역졸(驛卒)들이 부르는 소리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급창 사령(級唱 使令)이 부르고 심지어는 권마성(勸馬聲) 소리꾼까지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마성(勸馬聲)은 첫째 가마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고로 저으라는 것, 둘째 길에 박힌 숨은 들을 조심하라는 것, 셋째는 길의 굽어진 굽이를 조심하라고 권마종(勸馬從)이나 교군(轎軍)에게 주의를 주는 내용(內容)과 구마종(驅馬從)이나 교군(轎軍)이 이를 알았다는 뜻으로 다시 외치는 내용(內容)으로 되어 가마를 고로 짓게 하는 기능(機能)이 있고 혼금(閹禁)소리(벽제(辟除)소리)와 더불어 귀인(貴人)의 위엄을 보이는 기능(機能)이 덧붙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권마성 선율(勸馬聲 旋律)의 구성음(構成音)은 re mi sol la do'이고 자유(自由)리듬으로 높은 소리인 la나 sol로 길게 지속음(持續音)으로 질러내는 것인데 판소리 설령제도 높은 솔인 la나 sol을 길게 지속음(持續音)으로 질러내고 군악삼장(軍樂三章)의 권마성(勸馬聲) 가락도 청태족(淸太簇)나 청황중(淸黃鍾)을 길게 지속음(持續音)으로 질러내는 점에서 같다. 설령제나 군악(軍樂) 또한 호기(豪氣)있게 나가는 음악(音樂)이라는 점에서 권마성(勸馬聲)과 같다 하겠다. 뒤집어 말해서 설령제와 군악삼장(軍樂三章)의 권마성(勸馬聲)가락이 권마성(勸馬聲)가락을 따서 지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것들이 서로 같은 특징(特徵)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 덧붙여서 판소리 사설에서 권마성(勸馬聲)과 관련된 말들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었다. 또 의성(義城)가마싸움에서 「앞에 가는 마부 에이야 네 말 좋자 자랑마라 에이야」 하는 구호(口號)라든가 좌수영(左手營)강강술래 가운데 가마타기에서 「에헤헤 에헤헤 어허허 어헤헤 위」 하는 구호(口號)도 실은 권마성(勸馬聲)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